

중국 첸밍제지그룹과 전략적 제휴

국내 대표적인 인쇄용지업체인 신무림제지(대표 이원수, www.moorim.co.kr)는 지난 3월 7일 중국 최대규모의 국영자본 제지회사 첸밍제지그룹(회장 첸 홍구오, Chenming Paper Group)과 국내 제지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호제품의 교환판매를 비롯한, 해외시장 공동개척, 기술교류, 공동투자 등의 전 부문을 망라한 경쟁력 강화가 이면에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 선진 제지업체들이 인수·합병과 제휴 등을 통해 꾸준히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의 MOU 체결을 통해 신무림제지는 세계 최대 종이 소비지역인 중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판매를, 첸밍제지그룹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해외시장 경쟁 격화 타개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무림제지와 첸밍제지그룹은 MOU 체결을 계기로 제품판매에 있어 상호 생산제품의 자국 판매는 물론 판매시장과 제품정보를 공유하며, 상호설비를 이용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력 증진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협력,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 및 기타 부원료 등의 공동구매 등 양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향후 수익성과 시장성이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본적인 체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및 실무진 회의를 갖기로 했다.

신무림제지는 “중국 첸밍제지그룹과의 MOU 체결로 국내 마켓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생산제품의 상호교환 판매를 비롯해 시장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판매지종의 다양화로 2004년 수입지 무관세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인쇄용지업계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국산 아트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과 2004년 수입지 무관세 시대, 대내적으로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무림제지는 첸밍제지그룹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유럽 및 미주 지역의 세계 선진 제지업체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세계 10대 인쇄용지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첸밍제지그룹은 산동성·호북성 등 중국 7개성에 총 16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백만톤 이상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향후 5년 내 연간 300만톤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수는 12,000명이다. 중국내 7년 연속 제지업체 수익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제지부문 총 매출액 7,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매출액 1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 체결서에 서명을 하는 양사 대표 (좌:이원수, 우: 첸홍구오)

인터뷰 - 이원수사장



중국 첸밍제지그룹과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배경은__

최근 해외 선진 제지업체들은 규모의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과 제휴 등을 통해 꾸준히 경쟁력을 배가해 왔다. 금번 양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 역시 세계 흐름에 맞춰 절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는 2004년이면 수입지 무관세 시대가 된다.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간 경쟁을 넘어 세계 우수 제지업체들과 충성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완전 자유경쟁체제가 됨을 의미하며, 더욱 더 국제 경쟁력 향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첸밍제지그룹과의 제휴는 종이의 최대 소비처인 중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판매를 도모하며, 제품 교환판매를 통한 지종의 다양화로 2004년 무관세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 선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 제지사와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쟁력의 제고에 있다.

경쟁력 제고 전기 마련

이번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기대효과는__

양사간 제휴내용을 보면 상호 생산제품의 자국판매, 기술교류, 공동투자 등 포괄적이다.

상호 생산제품 자국판매의 경우 새로운 설비도입 없이 지종의 다양화를 구축, 2004년 무관세 시대에 무차별적인 수입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내에서 안정적인 제품판매망 확보로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양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및 제품 정보공유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로 세계 선진 제지업체를 상대로 절대적인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쇄용지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은__

우선 당사의 중국 수출로 공급과잉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용지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업체끼리의 경쟁을 넘어 해외 선진 제지업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당사처럼 중국을 비롯해 해외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출 판매망과 지종의 다양화 구축 등 2004년 무관세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이번 신무림제지와 중국 첸밍제지그룹과의 제휴를 시작으로 국내 인쇄용지업계는 국내 시장의 수성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각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세계 경쟁력을 가진 지종 위주의 선택과 집중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 선진 제지업체와의 제휴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갑준기자〉